

올 여름, 머드와 함께...“보령해양머드박람회 오세요”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천해수욕장 일원 개최

산업형 박람회+글로벌 축제

해양머드 주제관 등 7개 전시관

머드탕, 머드미끄럼틀 체험행사

볼거리·먹거리 가득한 서해

인근 국내 최장 해저터널 위치

7월 20~24일 국제요트대회 개최

올 여름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해양 관련 국제박람회인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열린다.

박람회 기간 여름 대표축제인 머드 축제가 함께 열려 머드를 온몸으로 즐기고 서해바다를 감상하며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31일 동안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가치’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해양머드 주제관, 해양머드 웰니스관, 해양머드&신산업관, 해양레저&관광관, 해양머드 체험관, 특산물 홍보관, 해양머드 공연관 등 7개 전시관이 구성·운영된다.

해양머드 주제관은 서해 갯벌의 생성과정부터 갯벌 복원 사례, 머드를 활용한 제품 등 머드에 대해 쉽게 설명한다.

특히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충남 갯벌을 상징화한 LED 큐브 조형물을 만나볼 수 있다. 흰발농게, 검은머리물떼새 등 충남 갯벌에 서식하는 583종 생물표본을 큐브 형태로 쌓아올리는 방식이다.

해양머드 웰니스관은 머드 테라피 체험, 고대 티베트의 전통 싱잉볼을 활용한 힐링 테라피 체험, 풋스와 체험, 아토피 치유체험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박람회에는 해양산업, 레저관광 분야 국내외 기관·기업이 참가한다. 해당 기관·기업은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전시 판매는 물론 수출 상담 등을 진행한다.

머드슬라이드, 머드풀장, 머드요트 체험 퍼레이드 등 머드를 몸에 바르며 즐길 수 있는 체험존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국내 첫 아시아세일링연맹 공인 요트대회인 ‘아시안컵 보령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한달 앞둔 6월 14일 충남도청사에 디데이(D-Day) 알람판이 놓여있다.

국제요트대회’가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보령요트경기장과 대천해수욕장 수역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박람회장에서 차로 1~2분만 가면 보령해저터널 입구에 도착한다. 해저터널은 총연장 6.9km, 국내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 5번째로 길다.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서해권안 접근이 편리해져 박람회장을 찾은 관

객들은 안전도 등 인근 관광지를 둘러본 후 개국지, 우럭젓국 등 향토 음식을 맛보면 좋다.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입장권을 할인 판매한다.

입장권은 일반 1만 2000원, 청소년 9000원, 어린이 6000원인데, 6월 20일까지 일반 8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파크 누리집에서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검색하거나 충남도내 NH농협은행 영업지점 및 보령시 농·축협,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041-930-2831

/김정원 jwkim87@korea.kr

220만 도민과 ‘힘센 충남’ 미래 비전 세운다

힘센 충남 준비위원회 가동

비전·목표·전략·공약 수립

특별·자문위원 135명 위촉

민선8기 출범을 앞두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도정 설계에 들어갔다.

지난 9일 첫 발을 댄 힘센 충남 준

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민선8기 도정 비전·목표·전략 수립과 공약 확정을 위해 가동을 시작했다.

준비위는 13~15일 도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당면 현안 과업 등을 위해 분과별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민선8기 비전, 목표, 전략, 공약 등 도정 운영 방향은 분과별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29일 발

표한다.

도정 최고 지향점이자 가치인 비전은 도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목표는 비전 달성을 위한 부문별 지향점으로 5~6개 정도 수립키로 했으며, 목표별 주요 추진 방향이자 중점 정책인 전략은 20여 개 가량 도출한다.

공약은 검토 목록 확정, 분과별 검

토, 분과 간사 토론, 당선인 중간보고, 공청회 등을 거쳐 100여 개를 추릴 계획이다.

준비위는 도정 운영 방향 설정 과정에서 220만 도민 목소리를 최대한 담을 계획으로, ‘당선인에게 바란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한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위 주관으로 시군 공약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도 밝을 예정이며, 준비위 과정에서의 주요 논의 결과와 핵심 과제 등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시로 공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준비위는 6월 13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및 분야별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2개 특별위원회 위원 10명, 5개 분과 자문위원 125명 등 총 13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 특별위원 및 자문위원은 각계 전문가들로, 준비위의 민선8기 도정 방향 설정 과정에서 도민과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자문 활동 등을 펴게 된다.

(관련기사 2면)

/힘센 충남 준비위원회 041-635-8133

3

충남

색

대전

치

충남으로 놀러오세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

7.16.(토) ~ 8.15.(월)

충남보령시 신항동2282
대천해수욕장 인근

백제문화제

10.1.(토) ~ 10.10.(월)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일원
부여군 구드래 일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10.7.(금) ~ 10.23.(일)

계룡대 활주로 일원

“군문화엑스포 홍보, 저희만 믿으세요”

SNS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다양한 연령대 21명 선발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6월 7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사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SNS서포터즈는 대학생부터 실버 세대까지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 21명이 선정됐다. 활동 기간은 엑스포가 종료되는 10월 23일까지이다.

위촉된 서포터즈들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를 위해 ▲계룡시 명소, 맛집 등 관광지 소개 ▲엑스포 준비상황 등 행사 안내 ▲공식 SNS 채널 콘텐츠 공유 등 온라인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22년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K-Military,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3軍본부가 위치한 충청남도 계룡시(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정부승인 국제행사로 개최된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042-840-3925

도정만평

설인호



건강검진으로 질병 조기발견하세요

취약계층 노인 건강검진 지원

충남도는 ‘취약계층 시니어 건강하세 효(孝)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재개한다.

지원대상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질병에 대한 검사 및 수술에서 소외된 도내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500여 명이다.

1인당 9만 원을 지원하며, 사업은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에서 수행한다.

대상자는 기본검진(혈액 및 엑스레이 검사)과 함께 갑상선, 경동맥, 복부 초음파, 종양표지자 혈액검사(4종), 머리·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CT) 6종 중 1종이나, 당뇨·이상지질검사 중 1종을

선택할 수 있다.

검사비용은 연 1회 지원으로 검진을 지원받은 사람은 수검 일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타 검진사업과 중복해 지원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의료원(☎041-570-7080), 공주의료원(☎041-962-1127), 서산의료원(☎041-689-7432), 홍성의료원(☎041-630-6374)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정책과 041-635-4316

귀어학교 교육 신청하세요

21일까지 교육생 20명 모집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는 21일까지 귀어학교 6기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

교육생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귀어인 또는 귀어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신청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도 수산자원연구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충남도 보령시 대천항중앙길 21 기술보급과 귀어학교) 또는 전자우편(bomi3110@

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생은 합숙하면서 귀어·귀촌 사례와 정책 및 자금 지원 사업안내, 어업·양식업·창업 등에 필요한 이론 교육과 체류형 현장 체험 실습에 참여한다.

자세한 정보는 도 누리집(www.chungnam.go.kr)이나 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http://www.chungnam.go.kr/fishery1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64

9월 7일 곤충의 날 행사 열린다

도, 곤충산업 활성화 대책 논의

충남도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는 6월 10일 농업기술원 농업인대학에서

한국곤충산업중앙회 충남지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는 곤충산업 관련 전문가, 곤충 사육농가, 관계관 등이 참석해

도내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및 제언사항과 성공적인 곤충의 날 행사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오는 9월 7일 개최 예정인 곤충의 날 행사는 체험을 통해 침체된 곤충 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327

각계 전문가 ‘힘센 충남’ 뒷받침 나선다

2개 특위, 5개 분과 구성

민선8기 ‘힘센 충남’의 비전과 목표, 전략 수립을 뒷받침하게 될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단이 닷을 올렸다.

힘센 충남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영석)는 6월 13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및 분야별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과 김영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위촉식에서는 2개 특별위원회 위원 10명, 5개 분과 자문위원 125명 등 총 13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 특별위원 및 자문위원은 각계 전문가들로, 준비위의 민선8기 도정 방향 설정 과정에서 도민과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자문 활동 등을 펴게 된다.

지역균형발전과 교육발전 등 2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구경완 호서대 교수와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원, 윤주명 순천향대 교수, 이명희 공주대 교수 등을 위촉했다.

기획조정분과위원회는 유기준 전 아산시의회 의장 등 18명을, 경제산업분과위원회는 고인석 호서대 교수와 박종관 백석대 교수, 최창하 한국기계학회 회장 등 3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힘센 충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머리를 함께 맞댄다.

복지안전분과위원회는 박종영 대전대 교수 등 19명, 교육문화환경분과위원회에는 백순화 백석대 교수, 한상호 상명대 교수 등 34명, 국토해양농업분과위원회는 맹부영 전 충남도 해양수산국장 등 24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힘센 충남 준비위원회 041-635-8133

도내 해수욕장 33곳 수질검사
장구균·대장균 2개 항목 검사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개장을 앞둔 서해안 일대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성 검사를 한다.

검사는 태안 28곳, 보령 2곳, 당진

2곳, 서천 1곳 등 4개 시군 33개 해수욕장에서 실시한다.

검사항목은 장염 등 질병과 관련성이 높은 장구균과 대장균 2개 항목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수욕장 개장 전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886

스승 성주록, ‘매헌’ 호 지어 선물로

대한의 청년, 윤봉길

윤봉길의사 상하이 의거 90주년
3) 오치서숙에서 한학을 수학하다

윤봉길은 13살 때인 1921년부터는 옆 마을인 둔지미에서 성주록 선생이 훈장으로 있는 오치서숙에 들어갔다. 성주록의 호는 매곡(梅谷)이며 본관은 창령이다. 1876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덕산의 둔리 지산 마을에서 살았다. 그는 후일 덕산향교에서 직원(直員)을 지내기도 한 유학자이다. 윤봉길은 그의 문하에서 통감을 비롯한 경서를 배우고 한시를 배웠다. 윤봉길의 한학에 대한 실력은 일취월장하였다. 특히 한시에 특별한 재능을 보여 시회(詩會)에서 자주 장원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윤봉길은 한학을 공부하면서 한편으로는 신학문을 독학하였다. ‘동아일보’를 구독하여 세상 물정을 이해하였으며, ‘개벽’은 한권도 빠지지 않고 읽었다고 한다. ‘개벽’은 천도교의 기관지로,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사회개조와 민족문화의 창달을 표방한 혁신적인 잡지였다. ‘명현록’이나 ‘국조명신록’ 같은 역사책도 손때가 묻도록 읽었다. 그는 야학당에서 경찰의 감시를 피하여 수시로 이 책에 들어 있는 역사를 강의하여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었다. 15살이 되던 해에는 ‘일어속성독본’이란 책을 사서 자습하였다. 주위에서는 모두 의아해 하면서 반대하였다. 그러나 그는 적국인 일본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년 동안



윤봉길의 스승 성주록 선생



문집 '매곡언지'

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 일상 회화가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그가 이때 일본어를 공부한 결과 후일 청타오(靑島)에서 일본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취직할 수 있었다. 또한 상해의거 시에는 삼엄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유창한 일본어 실력으로 무사히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

성주록은 윤봉길이 17살이 되었을 때 자신이 더 가르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윤봉길은 경서를 다 배웠으며, 한시를 짓는 데도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 윤봉길은 계속 가르쳐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스승은 윤봉길에게 자신의 호인 매곡의 매(梅)자와 성삼문의 호인 매죽헌에서 헌(軒)자를 따서 ‘매헌(梅軒)’이란 호를 지어 졸업 선물로 주었다. 한 겨울 추위를 잘 견뎌내는 매화의 고고한 기품과 성삼문의 충의정신을 본받으라는 뜻이었다. 윤봉길은 기쁜 마음으로 스승의 뜻을 가슴에 새겼다.



김 상 기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걷주’ 가입자 30만 돌파…“함께 걸어요”

월 30만보 걸으면 인센티브

올바른 걷기운동 체력 향상

충남도가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도입한 걷주 앱 가입자 수가 30만 명을 돌파했다.

도에 따르면 걷주 앱 가입자는 6월 7일 기준 총 30만 503명으로, 전년 대비 8만 7199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4만 1751명에 달하는 점도 눈에 띈다.

걷주는 2020년 서비스를 개시해 2021년 5월 10만 명, 2021년 11월 20만 명, 올해 6월 30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 도는 건강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포인트는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월 20만 보 도달 시 도내 농산품을, 일반인은 월 30만 보 도달 시 3000원 쿠폰

을 각각 지급한다.

규칙적인 걷기는 ▲우울증 완화 ▲신장병 예방 ▲다이어트 ▲노화로 인한 기억장애 개선 ▲성인병 예방 ▲스트레스 해소 ▲골다공증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

걷주 앱은 스마트폰에서 구글플레이 등의 앱 스토어를 통해 내려받아 가입·활용하면 된다.

/체육진흥과 041-635-3857

/김정원 jwkim87@korea.kr



가뭄으로 마른 논…급수차 동원

8월 예산군청에서 긴급 지원한 급수차가 물을 쏟아내고 있다. 농민이 급수차에서 쏟아내는 물을 바라보고 있다.

계속된 가뭄으로 관정이 말라버려 모내기할 수 없던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시왕리의 한 논에 6월 8일 예산군청에서 긴급 지원한 급수차가 물을 쏟아내고 있다. 농민이 급수차에서 쏟아내는 물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탄소중립·녹색성장’ 도민 목소리 담는다

24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

충남도가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수립 중인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에 도민 목소리를 담는다.

도는 오는 24일까지 도 누리집에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기본계획 초안은 도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글의 만사형통 의견 수렴 바로 가기를 통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본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수산 ▲

흡수원 ▲이행 기반 등 8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및 세부 계획을 담고 있다.

현재 초안은 도와 시군, 탄소중립위원회가 함께 검토·보완한 것으로, 이번엔 도민 의견을 수렴해 수정·개선하고 다시 한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기후환경정책과 041-635-4427

‘안전한 등산’ 생활권 등산로 정비

도내 등산로 312km 대상

충남도는 도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도내 생활권 등산로 정비에 나선다.

도는 산림휴양공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총 71억 원을 투입

해 등산로 312km 구간을 정비할 계획이다.

생활권 등산로 뿐만 아니라 충남의 100대 명산 등산로와 내포문화숲길 등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정비가 필요해진 곳에 대한 보수 작업도 진행한다.

/산림자원과 041-635-2575

“다시 찾고 싶은 충남 만들 것”

충남 관광모니터단 발대식

충남도는 6월 9일 관광 불편사항 발굴을 위한 ‘충남 관광모니터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관광모니터단은 도내 관광지의 청결·친절, 안전 위해요소 등 관광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관광시책을 제안하는 등 지역 관광지 현황을 관찰·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문화관광해설사, 도내 외국인 유학생 등 30명을 신규 위촉했다.

관광모니터단 제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채택된 사항은 시군 관광부서에 전달해 개선·조치하며, 이를 통해 지난해 발굴·처리한 불편사항은 총 234건에 달한다.

/관광진흥과 041-635-388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안내

신고자는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책임감면
충청남도는 누구나 안심할 수 있도록 신고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건강
불량식품 제조·판매

안전
부실사공

환경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소비자의 이익
바이러스 백신 유통차기

공정경쟁
가짜간담합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광고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 담 | 국번없이1398 또는110
인 터 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팩 스 | 044-200-7772
방문·우편 | (세종) 세종시 도움5로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66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99
비밀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대리신고
인적사항, 위임장 등 본인 제출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은 신고자 등의 없이 불인된 자료 열람불가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01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의 동의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및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및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04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상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
☎044-200-7772-7782

공익신고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익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원)

내부 공익신고자가 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포상금 (최대 2억 원)

공익신고로 현재까지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구조금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 상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044-200-7740, ~7742-7748



농업 인재 양성 현장교육 진행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충남대 원예학과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예연구 분야 진로탐색을 위한 현장맞춤형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 학생들은 기관 견학 체험을 비롯 시험포장 현장에서 연구자들의 주요 업무와 앞으로 원예산업 분야의 연구 방향에 대해 교육받았다. 이와 함께 원예연구 분야(과수연구팀·스마트농업팀·신소득 작물팀) 연구현황 발표 등을 진행해 향후 진로 및 직업 선택을 위한 기회도 제공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082

온천 산업 고부가가치화 발판 마련

도, 정부 공모 선정 국비 확보 재할헬스케어 관련 사업 육성

충남도가 온천 산업 고부가가치화에 속도를 낸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스파(온천) 연계 재할헬스케어 분야 공모에 '실증 기반 스파 연계 재할헬스케어 안전 인증 및 산업 고도화 지원 사업'과 '스파 시설용 5G 기반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사

업' 등 2건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총 99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충남은 아산·온양·도고·덕산 등 지역 유수의 온천지를 기반으로 지리적·환경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실증기반 스파 연계 재할헬스케어 안전 인증 및 산업 고도화 지원 사업은 헬스스파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48억 원 등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제품 제작 및 고부가·수요지향적 기술 지원 등 완성도 높은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 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스파 시설용 5G 기반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하며,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51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61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육성과 041-635-3932

로봇공학 등 자원 국제교류한다

슬로바키아 방문단, 도청 방문

슬로바키아 질리나자치주 방문단이 6월 9일 국제교류를 위해 충청남도청사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단은 도청을 찾아 관계 공무원과 양 지역 간 국제교류 방안, 대학·연구기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도내 로봇공학 관련 기업과 대학을 방문해 미래 성장을 주도할 도

의 4차산업 자원을 체험했다.
내포첨단산업단지 1호 입주기업인 한양로보틱스를 찾아 회사 시설을 시찰하고 도내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가능성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도는 앞으로 슬로바키아 질리나자치주와 로봇공학 외에도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제통상과 041-635-3361

가족친화인증받고 혜택도 누리세요

6월 말까지 신청서 접수

충남도는 올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250곳으로 확대한다.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이 경과한 인증기업과 기관

은 2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후에는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센티브는 총 55개로 중앙부처, 지자체, 금융 기타 기관 등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으며, 심사를 거쳐 12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ffsb.kr/ffm>)이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86

“노인학대 예방, 인권 향상 힘쓸 것”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을 맞아 6월 14일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충청남도지

사 표창이 이뤄졌다.
또 충남노인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80여명의 충남나비세금참여단(노인 인권 옹호 활동가)의 발대식이 진행됐다.
아울러 김누리 중앙대 교수의 '거대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대전환. 노인'은 사회를 위해, 사회는 노인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 강연이 이어졌다.
충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4시간 신고·접수 전화 운영, 위기 상담과 사례관리 노인학대 예방 홍보, 노인 인식 개선 활동,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쉼터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상담(☎1577-1389)은 24시간 가능하다.
/노인복지과 041-635-4229

넥갈을 돌로 막은 '돌보'

이명재의 농업 관련 충청 사투리 -돌보, 물을 가둬두기 위해 쌓은 둑

“방죽은 물이 족으니께 흙보를 쌓년 거구, 넥갈물은 넘치야니께 돌보루 쌓년 거.”
“이전인 즈수지가 없었이니께 농사질라구 개울마다 돌보를 맹길어 썼지. 이전인 하천 하나이두 돌보가 수십 개씩 있었어.”

‘돌보’는 돌로 만든 보(淤)다. ‘보’는 물을 가둬두기 위해 쌓은 둑이다. 물이 흐르는 곳을 막아 독을 쌓으면 물이 고여 저수지가 된다. 보통 ‘보’를 쌓을 때는 흙과 돌을 이용했다.

그런데 ‘돌보’는 순전히 돌만을 이용해 물을 막아놓은 시설이다.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조들은 넥갈마다 하천마다 돌로 물을 막았다. 충남지역에서는 산간에서 솟아나는 물이나 작은 시냇물을 이용할 때는 방죽을 만들어 이용했다. 방죽은 물길이 작기 때문에 물은 장마철이 아니면 흘러넘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방죽 독은 흙으로 쌓아 못을 이루게 했다.
그런데 물길이 큰 넥갈이나 하천은 흙으로 막을 수 없었다. 가래질이나 수레로 퍼 나르는 흙은 금세 물에 쓸렸다. 그래서 충청의 선조들은 돌로 독을 쌓았다. 그러면 장마가 저

도 무너지지 않았다. 물이 적게 흐르는 갈수기에는 물이 고여 있고, 장마철의 큰물은 독 위로 넘쳐흘러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다.
이런 ‘돌보’는 현대의 댐이나 저수지와 많이 달랐다. 댐처럼 하천의 물길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하천이나 강 하류 지역에 물 부족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돌보는 자연이었다. 하천물은 돌보 틈으로 흘러내리고 넘쳐 내렸다. 그래서 충청의 선조들은 하나의 하천에 수백 수천의 돌보를 쌓아 이용할 수 있었다. 돌보에서 논으로 이어진 물줄기, 그것은 우리 선조들의 농사법이며 치수법이었다.
/이명재 충청언어연구소장

충청남도 15개 시군과 함께하는

맛풍당당

제철농산물 도장깨기

2022년 4월 ~ 2022년 11월

당진 감자/장미 Q

천안 오이 Q

예산 토마토 Q

공주 오이 Q

논산 수박 Q

부여 수박 Q

신선한 제철 상품을 즐기다보면 경품이~

농사랑에서 제철 농산물을 구매하고 다양한 경품도 받아가세요!

행사 참여는 농사랑 웹사이트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http://www.nongsarang.co.kr>

공주오이

부여수박

222



도 군부대와 녹색 병영 만들기 '앞장'

충남도가 제1회 환경교육주간을 맞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군부대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행사를 마련했다. 도는 6월 8일 계룡대 대강당에서 계룡대근무지원단과 군 장병 대상 환경교육 행사를 열고, 환경보전 의식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탄소중립 실천 운동 활성화 등 환경보전을 위해 협력하고, 군 장병의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 녹색 병영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후환경정책과 041-635-4414

“기후위기 극복,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요”

함께그린협동조합, 탄소중립 실천 벌 키우고 꿀 수확하며 현장교육

충남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이 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프로젝트 범위를 꿀벌 관리로 확장했다.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에 위치한 ‘함께그린협동조합’은 생태 시민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 꿀따기(채밀)’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올 봄 70억 마리의 벌들이 사라져 전국적으로 양봉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문제는 벌이 사라지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식량 부족 사태를 야기할 수



꿀 채밀 작업을 하고 있다.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함께그린협동조합은 탄소중립

프로젝트 범위를 ‘벌’로 확장하고, 지역 청년 양봉농부와 뜻을 모아 벌을 키웠다.

이지연 이사장은 “충남은 도농복합 지역이다. 벌을 함께 돌보는 아이들은 직접 그런 상황들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니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 위기는 미래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막연하게 뭘 해야 할까 걱정스럽고 궁금하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라고 덧붙였다.

함께그린협동조합은 2018년 아파트 주민공동체활동을 시작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인 협동조합으로 성장한 곳이다.

/함께그린협동조합 041-555-0801

/김정원 jwkim87@korea.kr

대기 측정대행업소 숙련도 평가 시료 채취 위한 장비 구성 등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6월 20일부

터 24일까지 도내 대기 측정대행업체 9곳을 대상으로 대기 분야(먼지) 정기 숙련도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시료 채취 과정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 등 장비 관련 준비사항, 먼

지 측정 장치 등 시료 채취를 위한 장비구성 여부, 시료 채취 절차 숙련사항, 측정 결과 산정 등 측정 준비부터 결과산출까지 전 과정을 점검한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871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원활한 교통소통

충남자치경찰, 현장 합동점검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회)는 6월 13일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기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경찰청, 보령경찰서, 보령시청,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현장점검을 했다.

박람회 기간 혼잡이 예상되는 해저

터널 입구, 흑포삼거리, 노을광장, 분수광장, 박람회장 입구 교차로, 머드로 중심으로 교통경찰관과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6월 중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교통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041-635-5895

천수만 양식장 피해 최소화 ‘총력’

고수온 대응 민관 협력 회의

충남도는 최근 천수만 해역 고수온 사전 대응을 위한 천수만 지역 수산 민관 협력(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현황과 계획 등을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민·관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고수온 피해 해결 방안으로 논의

중인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 대상 안면도 바깥쪽 해역 이전과 관련해 어업인 의견 수렴 등 양식장 구조 개선의 밑그림을 그렸다.

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절기 폭염 대비 천수만 양식어장 고수온 대응 추진계획’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며, 고수온 피해 우려 시 현장 대응반을 운영한다.

/수산자원과 041-635-4137

이순신의 극적인 승리, 명량해전

충무공 이순신 이야기

일본함대 밀물타고 명량 진입 썰물로 바뀌고 강한 북풍으로 日후퇴 조선수군 극적 승리

1597년 8월 3일 경상도 진주에서 통제사 재임명교서를 받은 이순신은 바로 전라도로 이동하여 순천-보성-장흥-해남을 거치면서 수군을 수습, 정비한 후 8월 29일 진도 벽파진에 주둔하였다. 13척의 판옥선을 확보한 이순신은 9월 7일 침입해 온 일본함대 13척을 물리친 후 점차 서진해 오는 일본군을 막을 방책을 강구하였다. 그러던 중 9월 14일 일본함대 선봉 55척이 벽파진 건너편 어란 앞 바다까지 도착하였고 후속함대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순신은 9월 15일 진을 우수영으로 옮겼다. 좁고 조류가 빠른 명량이라는 천험의 요새지 특성을 잘 활용하면 승산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순신은 10배가 넘는 적을 맞이하여 휘하 장수들에게



명량해전 상황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고, 살기만 도모하면 죽는다’며 결사항전의지를 강조하였다.

9월 16일 아침 일본함대 130여 척이 밀물을 타고 명량수로로 진입해왔다. 이순신은 휘하 13척의 전선 중 12척은 수로를 가로질러 일자진(一字陣)을 형성하도록 하고 자신의 배는 최선봉에서 일본 함대와 접전을 벌였다. 그리고 참전 의사를 밝힌 피란선 100여 척을 멀리 후방에 포진시켜 성원토록 하였다.

전투 초기에 휘하 전선들은 두려움에 뒤로 물러난 가운데 이순신 대장선만 선봉에서 교전하다가 점차 휘하 전선들도 합류하여 사력을 다해 싸웠다. 화포로 적선을 격침시키는 한편 적의 등선을 막기 위해

근접전도 치열하게 벌였다.

이후 13시경에는 조류가 썰물로 바뀌므로써 조선 수군은 맞을 내려서 전선을 고정시킨 후 계속 대포를 쏘아 적선을 격침시켰다. 15시가 넘어서는 조류가 최강류로 흐르고 북풍도 강하게 불어와 바람을 이용한 화공전을 펼쳤다. 당하지 못한 일본 군선들이 조류를 따라 수로 입구로 완전히 물러나면서 해전은 종료되었다.

해전 결과 일본의 전선 31척이 완전히 분멸되었으며, 다수의 전선이 파괴된 채 일본함대는 남해상으로 후퇴하였다. 이 해전에서 조선 수군의 전선은 1척도 분멸되지 않았다. 다만 근접전을 수행함으로써 수군과 의병 중 다수의 인명 피해는 발생하였다.

이 해전은 그야말로 극적인 승리였다. 이순신은 이날 일기에 하늘이 도왔다(天幸天幸)고 기록하였다. 명량해전 승리는 일본군의 승승장구하던 기세를 일시적으로 꺾음으로써 서해를 통한 일본군의 북상을 막아 조명 연합군의 대일본군 방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제장명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장

560만 충청인의 염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100만인 서명운동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세요!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방법

1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촬영
2 온라인 서명운동 홈페이지 접속
3 이름, 거주지 입력 후 [서명하기] 클릭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온라인 서명운동 <http://ccbanc-onlinesign.kr>

도내 귀어업인 34% ↑…“귀어·귀촌 지원해 인구 유입하자”

충남연구원, 연안 발전방향 모색
정주여건 강화, 해양자원 보전

지난 10년간 충남도 연안 어업인구는 줄었으나 귀어업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연구원(원장 유동훈)은 지난 10년간(2011~2021) 충남도 연안의 사회·환경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도내 어업인구는 49.9%, 어업가구는 41.2%로 각각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도내 귀어업인은 34.2% 증가했다.

연구진은 “어촌사회의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라며 “그나마 귀어업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귀어·귀촌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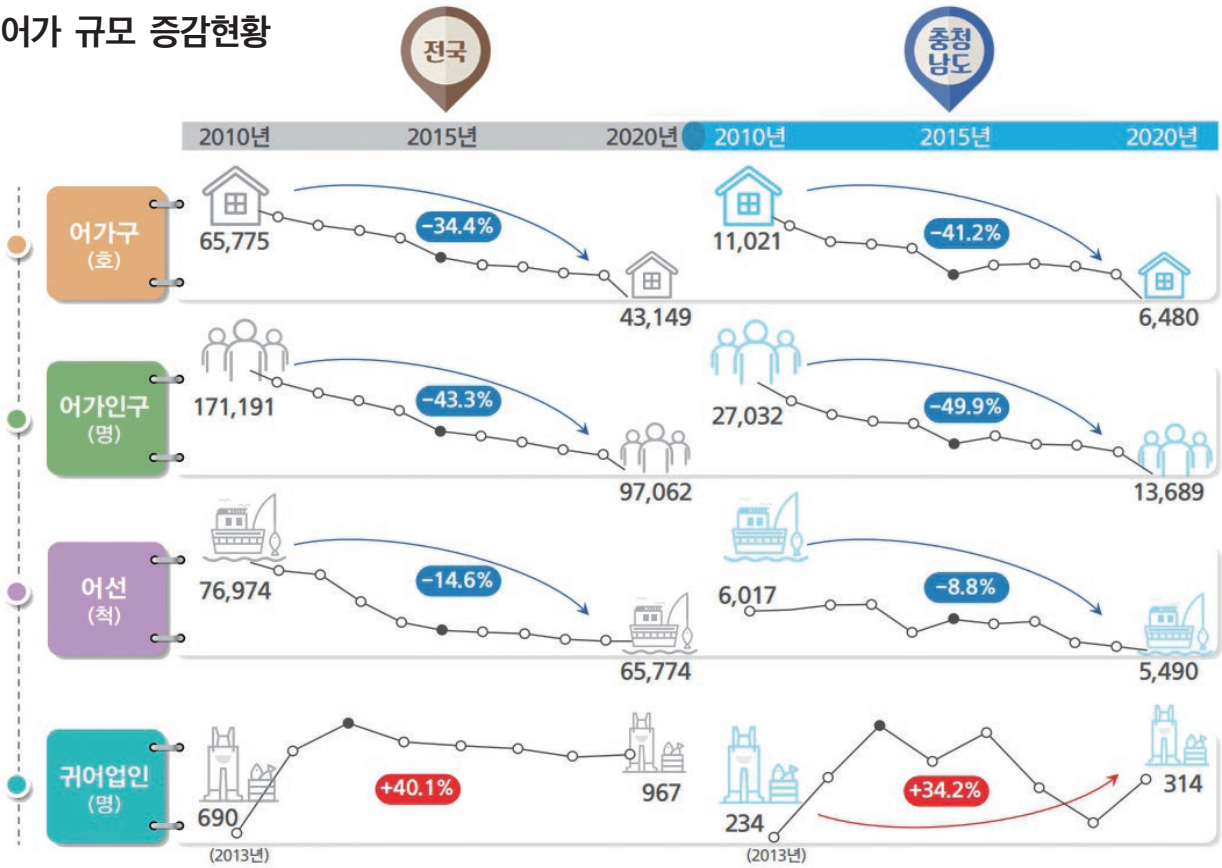
특히 어업세력 감소추세에도 충남의 어업생산고와 생산금액은 완만한 증가세로 보였고, 해양환경은 다양한 보전 정책 추진을 통해 깨끗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수산물의 어획고 및 생산금액은 지난 10년 전에 비해 각각 24.7%, 6.7%씩 증가했다.

연구진은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연안지역 및 어촌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및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 ▲어촌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기반 마련 ▲수산업 여건개선 및 어촌 소득기반 확충 ▲연안하구 및 갯벌 환경 개선 등 어촌정주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충남연구원 041-840-1192

어가 규모 증감현황



나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 추모

도,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충남도는 6월 6일 충남보훈공원에서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추념식을 엄수했다.

참석자들은 추모의 의미로 묵념과 함께 사이렌을 취명하고, 조총 21발을 발사했으며, 헌화·분향, 추념사·추도사, 추모 헌시 낭독, 추모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을 진행했다.

7월부터는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들에게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도내 전 지역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시내버스 이용요금 전액 감면을 실시한다.

충청남도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보훈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조성했다.

/사회복지과 041-635-4253

독립운동 후손의 한숨 도난당한 선조의 유품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충남의 도난문화재

- 서천 월남 이상재 선생 유물
친필서신 등 유물 11점 도난

월남(月南) 이상재(李商在) 선생은 충청남도 서천(舒川)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YMCA 전국연합회장, 신간회 창립회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 청년운동가인 인물이다.

그는 박정양(朴定陽)의 추천으로 신사유람단 수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박정양이 초대주미공사로 갈 때 채용되어 주미공사관 서기관을 지내기도 하였다. 귀국 후 낙향하였다가 승정원 우부승지, 내각총무국장 등 관직을 지냈으며 서재필(徐載弼) 등과 독립협회를 조직하였다.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된 뒤 고종의 요청으로 잠시 의정부참찬에 머물렀다가 군대 해산이 있는 뒤로는 관직을 떠났다.

학생 YMCA 전국연합회를 조직하여 3.1운동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3.1운동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른 후에는 YMCA 전국연합회회장으로 각종 강연회와 농촌운동 등 폭넓은 민족운동과 계몽운동을 주도하였다.

1922년에 조선교육협회 회장, 조선일보사 사장, 1925년 전국기자대회 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1927년 신간회(新幹會) 초대 회장에 추대되었으나 곧 병사하였다. 장례는 한국 최초 사회장(社會葬)으로 치러졌다.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중지리에는 이상재선생의 생가지(生家址)가 있어 건물을 복원해 놓았으며 1990년 충청남도 기념물 제84호로 지정되었다. 생가지 옆에는 월남 이상재선생 전시관 있어 선생의 유품과 유물이 보관되어 있다.

최근 리모델링된 전시관은 1991년 유물관으로 건립되어 선생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8년 12월 14일 오전 7시경 도굴꾼이 유물관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전시되어 있었던 병풍 1점과 친필서신 8점, 만장 2점이 없어졌다. 도난당한 유물은 선생이 1890년 아들에게 보낸 친필서신과 붓으로 그린 병풍 등으로 비지정 문화재이지만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은 유물들이었다.

유물을 훔쳐간 도굴꾼은 문화재청 강신태 사법단속반장에게 2001년 2월 붙잡혔다고 한다. 그가 훔친 보물 604호 ‘적개공신 장말손 상훈 교서’와 보물 881호인 ‘어사패도’를 되찾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상재 선생의 유물은 비지정 문화재로 되찾았는지 그리고 되찾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최근 이상재선생의 외교문서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이 기회에 도굴꾼이 붙잡힌 지도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상현 충남역사박물관 선임연구원



월남 이상재전시관 전경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저렴한 비용으로
충남도 산모는
누구나 이용가능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은

- 산모와 아기를 위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
- 전문 인력이 운영하는 산후 케어 프로그램
-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관리 시스템 등 산후 케어를 위한 최고의 시설로 모십니다.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안내

예약 방법

- 분만 예정일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평일 14:00부터 선착순 방문 예약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상담 및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 예) 분만 예정일이 2022년 4월인 경우 2022년 2월 7일(월)부터 4일간 방문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 안내

-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 ☎ Tel. 041) 630-6384(평일 08:30~17:30까지)

이용 대상

- 충청남도에서 출생한 산모

이용료: 182만 원(2주 기준)

기간	1주(7일)	2주(14일)	3주(21일)	4주(28일)	비고
금액	91만 원	182만 원	-	-	-

※ 예약금: 총 이용 금액의 10%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요금은 13만 원으로 합니다.

※ 산생아 출산 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합니다.

이용자 감면

감면율	감면 대상	구비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그 배우자	•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5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30%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소속을 가진 산모	•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10%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 지역의 산모	• 주민등록증 • 출생증명서

※ 지원 대상자(배우자, 가족 등 포함)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에 신청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 Tel. 041) 630-6384
www.chppcc.or.kr

충남 감태 넣은 ‘ 뇨끼’ ... “입맛 사로잡았다”

충남 수산물 요리 경연대회

20팀 참가...수상작 상품 개발

광어, 새우 등 충남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 경연대회가 열렸다.

충남도는 6월 9일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 충남도립대와 ‘충남 명품수산물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도와 대전시 소재 대학·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20팀이 참가했으며, 지역 대표 수산물을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들을 선보

였다.

심사 결과 ▲대상 1팀(대전과학기술대 강혜나·강인영) ▲최우수상 1팀(한국글로벌세프고 박효준·박성훈) ▲우수상 4팀 등이 선정됐다.

대상팀은 흰다리새우, 관자, 감태를 활용한 라따뚜이와 치즈 크림 해산물 감태 뇨끼 요리를 선보였다.

일부 수상작은 상품화 가능성을 바탕으로 전문업체와 협업해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 등 특화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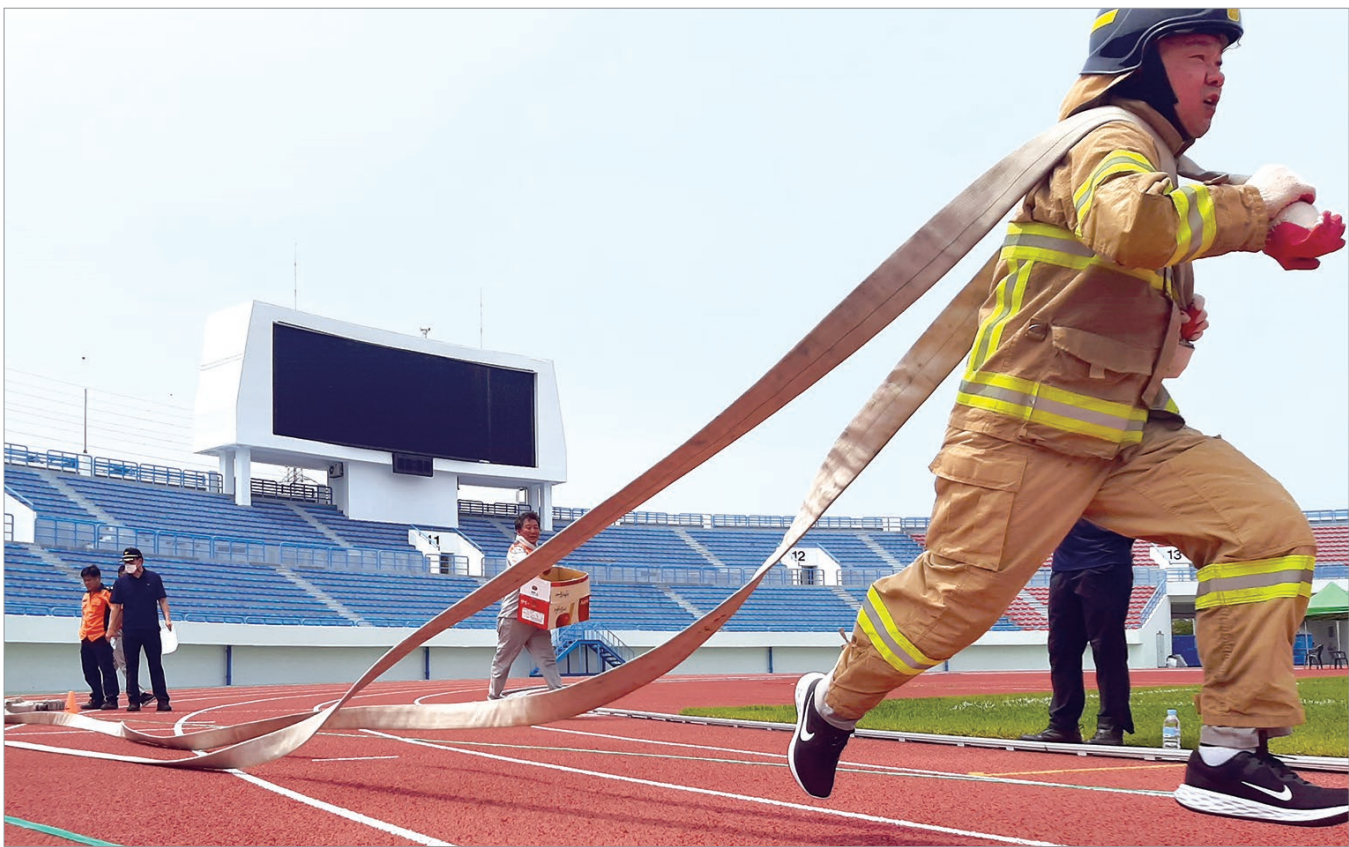
/어촌산업과 041-635-4845



충남 명품수산물 요리 경연 요리경연 대회 참가팀이 요리를 하고 있다.



충남 명품수산물 요리 경연 대상작



의용소방대원 소방호스 끌기 ‘온힘’

충남소방본부는 6월 10일 보령종합경기장에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소방호스 끌기와 수관 연장 후 방수자세, 개인장비 착용 릴레이 등 3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도내 16개 소방서, 378개 대 1만580명으로 조직된 충남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 보조와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도내 최대 민간봉사단체 중 하나이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525

휴대폰 과의존 슬기롭게 해결하세요

디지털 과의존 예방 토크콘서트

충남도는 6월 8일 부여 은산초·중학교에서 ‘서로의 마음을 들어보아요’란 주제로 디지털 과의존 예방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충남스마트쉼센터, 부여 은산초·중학교, 충남디지털배움터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토크콘서트는 학생들의 바이올린 연주, 디지털 과의존 영상 시청,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예방교육 및 상담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쉼센터 누리집(www.iapc.or.kr)이나 전화(☎1599-0075, 041-635-5834~6)로 문의하면 된다.

/정보화담당관 041-635-3711

충남 6차산업의 현황과 미래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 알려주는 충남학

- 충남의 산업경제

충남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농업은 우리나라 역사상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하는 큰 사고체계 속에서 발전해온 천하의 근본이면서 국가백년지계를 세우고 유지하는 원동력이다.

조금은 생경한 느낌이 드는 용어 중의 하나가 바로 6차산업화이다. 이는 세 가지 산업(1차×2차×3차산업=6차산업)의 융합을 통해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과 무형의 자원을 토대로 하는 농업(1차산업)과 식품과 특산품의 제조·가공(2차산업)

그리고 유통과 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을 연계시켜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충남에서는 2022년도 총 222개의 농업경영체에 대한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충남이 창조농업의 토대를 제공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최근에는 충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단위에서 농업 분야가 크게 위축되고 위기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다. 시장 개방으로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하고 일부 농산물에 대한 생산성을 향상했어도 오히려 실질적인 가격 하락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충남의 농업 현황 속에서 6차산업화를 통한 미래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충남의 농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능한 청년층이 이탈

하지 않도록 정주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정주하는 청년들에 대한 주택 제공, 안정적인 삶의 보장, 과학적 영농이 가능하도록 고등농업교육 지원, 지역농업 후계청년들에게 상호 제휴(alliance)할 수 있는 조직 구성과 지원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수도권으로 이주했던 우수인력들을 충남지역으로 귀환시킬 수 있는 강력한 재정지원 정책의 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는 과학적 영농을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팜(smart farm)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6차산업화를 통해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효과적인 판매전략을 지원하고 3차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로컬푸드 활성화, 수익모델 창출, 지역관광 상품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지원체계, 창업보육지원, 경영컨설팅지원, 판로지원, 6차산업 지구 도입)을 시행해야 한다.

/신건권 호서대학교 교수

점검 통한 안전한 축산물 공급

유통기한, 달걀 포장 적정 처리

충남도는 여름철을 맞아 6월 말까지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위생점검을 한다.

점검 내용은 ▲보존·유통기한 준수 ▲위생적 취급·운반 준수 ▲달걀 선별·포장 적정 처리 ▲개진 달걀 등 보관·유통·판매 금지 준수 ▲자가품질검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축산물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현장 지도한다.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18

장마 대비 토양정화업체 점검

위반업체 행정처분, 과태료

충남도는 오는 24일까지 토양오염 예방 및 오염 토양 적정 관리를 위한 토양정화업체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은 도내 토양정화업체 6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술 인력 및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 토양정화업 등록증 대여 여부, 토양정

화 공사의 부실 및 하도급 여부, 토양오염 조사기관 업무 병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반은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시정이 가능한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다.

/물관리정책과 041-635-4472

원숭이두창 감시·대응 강화

도, 의료계 등과 협조 체계

충남도는 정부의 원숭이두창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에 따라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정부는 5월 31일 대책반 운영에 이어 원숭이두창을 2급 및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기경보 발령과 함께 각 지자체에 후속 조치를 통보했다.

도는 정부 조치에 따라 의료기관, 의사회, 약사회 등 유관기관 및 관련 유관단체에 해당 내용을 전파하고, 국내외 발생동향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감염병관리과 041-635-4392

여름철 농산물 잔류농약 집중검사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조사도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 장마철을 맞아 8월 말까지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한다.

조사는 여름철 부적합 판정이 자주 발생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병해충 발생정보를 토대로 분석하는 방식으

로 진행한다.

검사항목은 클로르피리포스 등 잔류농약 340종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생산단계부터 관리할 계획이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851

‘충남 교통안전의 날’ 합동 캠페인

충남도는 6월 13일 보령시 동대사거리 일원에서 ‘교통안전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에는 보령시, 한국교통안전

공단, 충남교통연수원, 보령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 녹색어머니회, 교통유관기관과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해 교통안전 문화를 알렸다.

/교통정책과 041-635-4572

더워서 좋다!

올 여름휴가는 충남 해수욕장에서

충남 해수욕장 개장 일정

충남도 내 주요 해수욕장이 빠르면 7월 2일부터 일제히 개장한다.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은 완만한 깊이, 너른 모래사장, 풍부한 갯벌, 다양한 놀이시설과 숙박시설을 자랑한다. 볼거리·놀거리·먹을거리 풍부한 충남 해수욕장에서 올해 여름휴가를 즐겨보자. /김혜동 khd1226@korea.kr



당진

왜목마을, 난지섬 : 7.9.~8.21.(44일)

일몰과 일출을 동시에 볼 수 있고 체험거리 풍부

볼거리 : 일출명소



태안

만리포 : 7.3.~8.29.(5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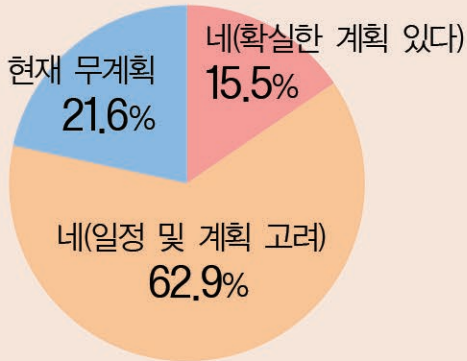
그외 27개소 : 7.3.~8.15.(44일)

기암괴석이 다채로운 해안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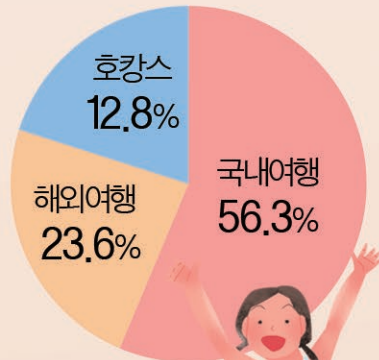
즐길거리 : 캠핑, 해루질, 서핑



올해 여름 휴가 계획 세웠나?



고려하고 있는 휴가지는?



보령

대천 : 7.2.~8.21.(51일)

무창포 : 7.9.~8.15.(38일)

조갯가루의 하얀 백사장과 적당한 수온

볼거리 : 2022보령해양머드엑스포 (7월16일~8월15일)

서천

춘장대 : 7.9.~8.14.(37일)

울창한 송림, 완만한 경사의 백사장

즐길거리 : 갯벌체험



2022년도 충남도내 해수욕장 현황(총 33곳)

보령시 2개, 당진 2개, 서천 1개, 태안 28개

※ HR테크 기업 인크루트 '현대인의 올해 여름휴가 계획' 성인남녀 989명 대상 설문조사

그래픽/김선이

부여 백마강 생태관광·치유 공간으로 탈바꿈

전문가 컨설팅 통해 청사진 도출
350억 투입 7개 테마 공원 조성
원도심 관동 관광벨트 구축 기대

[부여]부여군이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청사진 구체화 작업을 속속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사업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요청해 전문가 컨설팅을 받았다. 이 기관은 산림청 산하 준정부기관이자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등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날 컨설팅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구성한 전문가와 관리원 정원기획평가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방정원의 품질과 역할’ ‘지방정원의 체계적인 조성과 운영’ 등이 자문

및 컨설팅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정원협회 송정섭 고문은 “정원의 핵심은 식물”이라며 “온대 기후에 알맞은 수생식물 식재, 국가정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가든 스쿨 운영, 치유정원과 연계한 치유·복지·체험·힐링·생태관광의 융·복합화 필요성” 등을 자문했다.

또 “동적관광을 위한 물길을 이용한 카누체험장, 물길 가로변 수목 조성, 인공미를 최소화한 습지에 강한 수생식물 및 수목 식재, 이달의 수목 이벤트 행사 개최” 등을 제안했다.

한국전통문화대 전통조경학과 이선교수는 “백화점식 전시공간 배치 지양, 정원마를 활성화, 주민 참여도 확산을 위한 주민 정원관리제 운영, 그늘막과 쉼터 조성, 모래 물놀이장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기획평가팀 관계자는 지방정원 예정지 지정 관



부여 백마강 일원이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사진은 백마강 국가정원 조감도.

련 사전 행정절차와 사전 검토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국가정원(생태정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쌓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실시설계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

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백마강 국가정원(생태정원) 조성을 위한 백마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으며,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통과했다.

역세 명소인 부여읍 군수리 백마강 둔치 130ha에 도비 175억원과 군비 등 총 350억원을 들여 부여의 역사성과 자연경관을 담은 생태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백제 이야기 정원, 부여 문화 정원, 웰니스 향기정원, 동아시아 전통정원, 참여예술 정원, 경관작물 정원, 모래 물놀이 정원 등 7개의 다양한 테마로 구성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공되면 부소산에서 부여도심, 궁남지, 백마강변을 연결하는 관광벨트가 구축되고 규암 사비123 공에 마을까지 아우르는 관광거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군 제공

‘청양이’도 이제 K-POP 스타

유명 유튜버와 댄스 커버 콜라보
공개 하루만에 14만 조회수 돌파

[청양]청양군 관광캐릭터 ‘청양이’가 유명 유튜버와 제작한 K-POP 댄스 커버 콜라보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컴백한 인기가수 PSY(싸이)의 ‘THAT THAT’이라는 곡에 맞춰 ‘청양이’와 ‘ARTBEAT’ (구독자 380만명의 K-POP 댄스 커버 유튜버)가 춤을 추는 이 영상은 청양 알프스공원과 천장호 출렁다리의 아름다운 배경과 역



청양이-유튜버 'ARTBEAT' 콜라보 영상 장면.

동적인 춤 동작을 담아내 청양군의 관광지가 주는 색다른 매력을 맞출 수 있다.

유튜브 영상이 ‘ARTBEAT’의 채널에 공개된 지 하루만에 조회수 14만회를 돌파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최초로 공개되는 ‘청양이’의 춤사위에 “청양이가 너무 귀엽다”, “짧은 팔로 똑딱거리며 춤 추는게 너무 잘 어울린다”며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청양이와 인플루언서의 협업 영상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청양이’ 뮤직비디오 및 이모티콘 배포 등 ‘청양이’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만나보고 또 청양군 관광지를 홍보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양군 제공

한여름 달콤한 논산딸기 ‘인기’

논산시, 여름딸기 품종 ‘고슬’ 정식
딸기향 자연학습체험장서 선보

[논산]새콤달콤한 맛을 자랑하며 겨울철 대표 과일로 자리잡은 딸기, 논산에서는 한여름에도 빨갭게 익은 달콤한 딸기를 맛볼 수 있다.

논산시는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자연학습체험장에 여름딸기 품종인 ‘고슬’을 정식했다고 전했다.

여름딸기 품종인 ‘고슬’은 가을에 정식해서 겨울을 지나 수확하는 일

반적인 딸기의 특성과 다르게 높은 온도에서도 꽃대가 잘 생기는 특성을 갖고 있다.

현재 자연학습체험장은 여름딸기 품종인 ‘고슬’과 함께 영양번식체인 딸기의 런너가 행잉베드 밑으로 늘어져있어 가족 단위는 물론 남녀노소 관람객에게 이색적인 경관을 선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논산을 대표하는 딸기를 사계절 만날 수 있는 색다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산시 제공

“공주산성시장으로 밤마실 갈까?”

야시장 개장...10월까지 매주 금·토
특화상품·문화공연 등 볼거리 풍성

[공주]공주시는 ‘2022 공주산성시장 밤마실 야시장’이 오는 10월까지 산성시장 문화공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주시가 주최하고 공주산성시장상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인 공주를 방문하는 야간 관광객에게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 판매와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일 개장한 야시장은 오는 10월 29일까지 22주 동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총 44일 동안 산성시장 문화공원에서 진

행된다.

고소한 군밤, 알밤야채삼겹말이, 알밤 순대, 율피전, 알밤 샌드위치 등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판매하는 판매대 20개가 운영된다.

또한, 밤마실 야시장과 함께 열리는 문화공연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공연팀이 참여해 행사의 풍성함을 더해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주 원도심의 대표적인 행사였던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열리지 못했다가 다시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야심 차게 준비했다”며, “공주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께서는 신나게 즐기고 행복한 추억도 마음껏 만드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시 제공



공주산성시장 야시장에서 관람객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스마트 온실로 농민 소득 ‘쑥쑥’

예산군 7월 15일까지 설치 지원 접수

[예산]예산군이 오는 7월 15일까지 채소·화훼류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3년~24년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환경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보급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부합

하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모는 ▲온실신축 ▲온실개축 등 2개 분야로 지원된다. 온실신축의 경우 0.3~2ha 규모의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신축을 지원하며, 복합환경제어시설, ICT 융복합 기술 연

계시설 등이 포함된다. 온실개축은 기존 노후 온실에 대한 철거와 스마트팜으로 개축을 지원하며, ICT융복합 시설과 내부 시설·장비 등 포함해 지원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7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농업 소득 향상을 위해 공모사업 희망 농업인을 적극 지원하고 신규 대상자 발굴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예산군 제공

사는 재미 일깨워 준 ‘글 공부’

충남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하는 청춘페이지

- 김영자 님



나 한글 모르니께 여기다 취미 붙이게 복지관 좀 찾아 데리고 가 달라고 나 좀 데려다 달라

살아온 얘기 어떻게 말로 다 하. 지금 사는 게 기적이지.

그 옛날 신랑이라고 얻은 것이 그렇게 그지 같은 놈 만나서 집안에 남아나는 거 없이 살았어. 다 때려부수고 얘기 죽추어 먹을 쌀도 흠쳐다가 술 쳐먹고...

언제부턴가 ‘왜! 내 옷이 이리 없어지나’ 했더니 소문에 신랑이 다 내 옷 가져다가 술 바꿔 먹었더라고.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몽둥이를 들고 패려고 하면 맛아 죽을까 봐 도망쳤지.

시아매한테 있는 얘기 몰래 데려와서 그거 키우면서 배운 것 없이 먹고 사느라고 고생 징그럽게 많이 했어.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디 마음 붙이고 의지할 때가 없어 죽 것더라구!

그때 이우지 누가 “자네는 복지관 안 다니나? 복지관 다니면 글 모르는 사람 글도 알려주는데 나도 몇 년 다녀서 한글 땀어” 안하겠는가.

고 해서 복지관 찾아왔지. 그런데 공부 시작해서 책을 보는데 앞이 캄캄혀 ‘이걸 언제 배우나’ 그래도 못다니면 안되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녀야지. 마음에 다집했어.

먹고 살려면 돈도 벌어야 하고 글 깨칠려면 복지관도 다녀야 하고 이젠 아플 새도 없더라구.

가끔은 옛날 생각에 마음이 뒤집어졌다 자빠졌다 하기도 하고 몸이 시원찮아서 허리 뼈가 부러져 못 박고 공고리도 했지만 그나마 걸어 다니면서 복지관 다니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나는 언제 배워서 저런 걸 쓰나? 했더니 내 생전에 상도 받고 이런 날도 있네.

작년에 상 탄 걸로 쌀 팔아서 여즉까지 쟁여 놓고 먹고 있어. 돈 허투로 다룬데 쓸까 봐. 내가 밥 먹을 적마다 복지관에서 이렇게 공부했더니 쌀밥도 먹는구나 한다니께? 얼마나 감사혀...

고생 고생 살다보니 쥐구녕에도 별 들어, 세상 살맛 나!



①난지섬 ②솔피성지 ③합덕제 ④왜목마을

코로나 걱정 無 ‘안심여행’ 하세요

당진 안심관광지 4곳 선정
왜목마을·난지섬·솔피성지 등

[당진]당진시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2년 안심관광지에 4곳이 선정됐다. 특히 합덕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으며, 올해 신규로 선정된 왜목마을을 관광지와 난지섬 관광지, 솔피성지가 최근 일상회복으로 인해 여행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믿고 갈 수 있는 인기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한국관광공사가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안전, 관광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국내 최적의 안심관광지 198곳이 엄선됐다. 합덕제는 세계관광시설물유산으로 인정받은 제방이자 매년 천연기념물인 ‘고니’가 찾아오는 우수한 생태관광지이며, 왜목마을 관광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난지섬 관광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느끼며 힐링 트레킹이 가능한 대한민국 10대 명품 섬이며, 솔피성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신부의 생가가 있어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곳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당진시가 새로운 인기 관광지로 떠오르며, 모든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당진시 제공

“2년 기다렸다”...올 여름 휴가는 보령에서

대천·무창포 7월 본격 개장
머드박람회 등 프로그램 ‘풍성’

[보령]올해 여름 휴가는 보령시에서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보령시는 국민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을 1개월여 앞두고 올해도 각급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명품 해양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서해안 첫 해양 관련 국제행사인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세계인의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한 달 동안 열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내다보고 어느때 보다 친절하고 청결한

관광지를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천해수욕장은 오는 7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51일간 운영하고, 무창포해수욕장은 7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38일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와 기관·단체를 포함해 대천해수욕장에 1일 최대 425명과 무창포해수욕장에 81명으로 총 506명을 투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종합상황실 운영, 관광안내, 안전질서유지, 시설물 운영지원에 대천해수욕장에 260명, 무창포해수욕장에 56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보령경찰서와 119해변구조대, 보령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에서는 76명이 협력체계를 유지해 치안유지, 피서객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에 주력하고, 대천관광협회와 무창포 관광협의회 등 13개 단체에서는 114명이 질서유지, 차 없는 거리 운영, 청소년 선도 등에 힘쓴다. 특히 올해는 환경 정비에 주력하고자 총 78명을 확대 편성해 대천해수욕장에 57명, 무창포해수욕장에 21명을 배치함으로써 24시간 청결한 관광지를 운영한다. 안전관리 안내 표지판 및 감시탑(망루), 수상 오토바이 등 안전장비를 보수하고, 물놀이안전요원 배치 및 드론을 활용한 모니터링으로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물놀이 여건을 제공한다./보령시 제공

‘아산 둘레길’ 걸으며 건강 챙기고 역사 배워요

백의종군길 등 23곳 정비 완료
걷기대회 등 이벤트 진행 예정

[아산]아산시가 중점 추진 중인 아산 둘레길 단계별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아산 둘레길은 아산의 주요 산, 임도, 산성, 호수, 천변, 문화유적 등 고유한 자연과 역사 자원을 활용해 조성한 자연 친화적인 녹색길이다. 시민의 건강한 삶 증진을 위해 2018년 처음 추진됐으며, 현재 6개 권역 23개 노선 162.6km의 둘레길이 새롭게 조성되거나 정비 완료됐다. 국교전길, 청명이길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걷는 둘레길과 유구한 역사를



아기자기하게 꾸민 아산 둘레길 전경
자랑하는 현충사, 외암마을 둘레길을 걷는 역사문화권 중심 둘레길과 도고·선장면 시내권을 돌아보며 걷는 숲·

들·물길 중심 둘레길, 송악저수지와 천년고찰 봉곡사를 한 번에 둘러보는 천년의숲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은 용곡, 지산공원 신도시 둘레길 등 테마도 다양하다. 시민들은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코스를 선택하며 다양하게 둘레길을 즐기고 있다. 특별히 지난해 완공된 백의종군길은 조성 1년 만에 아산 대표 둘레길로 꼽힐 만큼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의 명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가던 중 14박 15일 동안 아산에 머물며 걸었던 길을 복원한 길인데, 아산과 이순신 장군에 얽힌 역사를 배우고 아름다운 풍광도 즐길 수 있다./아산시 제공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내가 살고 싶은 도시’ 주제

[천안]천안시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7월 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의 시각으로 고용·일자리, 창업,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청년정책과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공공문제의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공모전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청년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을 공모하며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이며, 7월 중 1차 적격심사와 2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개의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6개 우수 제안은 9월 중 시장장과 함께 최우수 1명 100만 원, 우수 2명 각 50만 원, 장려 3명 각 20만 원의 시상금을 받게 된다. 박은주 청년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청년들의 실제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니, 천안 청년정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작은 아이디어라도 마음껏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041-521-5501)으로 문의하면 된다./천안시 제공

이주여성 성공적인 안착 돕는다

태안군가족센터, 집단 상담 진행

[태안]태안군가족센터(센터장 가순선, 이하 센터)가 이달부터 결혼이민자를 위한 집단 상담을 실시한다. 센터는 지난 9월부터 8월 11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교육문화센터 언어치료실에서 결혼이민자 4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나를 찾아서-다문화가족 어울림사업 집단동

질성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행복감과 안정감을 높여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센터는 비슷한 환경·상황의 베트남 결혼이민자를 모집해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사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센터 내 베트남 통·번역 지원사가 동행한다./태안군 제공

포슬포슬 팔봉산 감자 맛보세요

오는 25일 감자 축제 팡파르

[서산]충남 서산시 팔봉산 기슭에서 가로림만 해풍을 맞고 자란 포슬포슬 맛 좋은 감자를 맛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시에 따르면 팔봉산감자축제추진위원회는 6월 25일부터 이틀간 팔봉면 양길리 주차장 일원에서 ‘제21회 팔봉산감자축제’ 개최를 결정했다. 3년 만의 열리는 축제는 팔봉산 감자를 주제로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공연으로 구성된다. 풍물패 놀이를 시작으로 ▲길게 깎기, 오래 들기, 무게 달기 등 감자 기네스 ▲노래자랑 ▲감자캐기 ▲물고

기 잡기 ▲보물찾기 ▲가수·댄스 공연 등의 즐길 거리가 열린다. 무료시식 코너, 품종전시관, 먹거리장터도 운영해 감자의 우수성도 알릴 계획이다. 팔봉산 감자는 서해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서산 팔봉산 기슭의 오염되지 않은 사질 양토에서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감자캐기 체험행사는 인기가 많은 만큼 개인은 당일 현장 접수, 단체는 유선(☎041-660-3793)으로 사전 예약받아 진행한다./서산시 제공



한산모시 우수성 세계에 뽐냈다

서천 한산모시문화제 성료

[서천]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한산모시문화제’가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새로운 바람을 입다’라는 주제로 한산모시관 및 한산전통시장 일원에서 개최됐다. 축제 기간 저산팔읍길쌈놀이보존회와 지역 예술인, 청소년 등이 참여하는 저산팔읍길쌈놀이와 한산모시문화제 기록 전시회, 주민패션쇼 등이 열렸다. 또 한산모시 베틀짜기 체험 및 전통모시학교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문

화유산인 한산모시짜기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특히, 6월 10일 개막식에는 한산모시관 주무대에서 서천군 어린이합창단의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서천군립예술단의 ‘모시꽃 피다’ 주제 공연, 유명가수 송가인, 머쉬베놈, 나건필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이튿날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찾아가는 전국민 희망콘서트’가 한산전통시장에서 열린 가운데 가수 김용익, 박상민, 김수희, 전영록, 혜진이 등이 출연, 호응을 얻었다./서천군 제공

나이·위치·성별을 초월한 ‘예’

(禮)

내포칼럼



백 승 중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훌륭한 아버지라도 아들을 직접 가르치기는 어렵다. 자식을 직접 지도하다 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가 멀어지기 쉽다. 영조는 훌륭한 임금이었으나 아들 사도세자의 교육에 지나치게 열중하다가 결국에는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비극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는 법이다. 17세기 한국사회에 “예학(禮學)”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대학자 김장생(金長生, 1548~1631, 호 沙溪)은 아들 김집(金集, 1574~1656, 호 愼獨齋)의 스승이었다. 아버지 김장생은 아들 김집에게 최고의 스승이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부자간이면서도 서로에게 공경의 예(禮)를 극진히 다하였다. 상호존중의 극치를 보였다는 점에서 후세의 모범이라 하겠다.

김장생 부자는 충청도 연산의 고향 마을에 묻혀 지냈다. 1606년(선조 39), 전라도 고부에 살던 권극중이란 선비도 연산서당에 찾아와 두 달간 머물며 김장생의 지도를 받았다. 그때 권극중은 스승 김장생의 자제인 김집의 효성스러운 태도를 직접 목격하였다.

“침실이나 서재에 훼손된 곳이 있으면, 신독재 선생(아들 김집)이 손수 살펴보고 수리하였는데 흠손질도 직접 하였다. (...) 만일 상에 올릴 고기반찬이 없으면 (아들 김집은) 몸소 그물을 들고 서당 앞 시냇가로 가서 물고기를 낚았다.”(권극중, <유사(遺事)>, <<신독재전서>>, 제20권)

그런데 아들 김집의 효성은 강요된 것이 아니었다. 스승 김장생 일가의 화목한 가정 분위기는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우암 송시열은 그 점을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어느 날 김집이 서제(庶弟)와 함께

아버지 김장생을 모시고 있는데, 서제가 친구에게 답장을 쓰고 있었다. 그는 상대를 ‘존형(尊兄)’이라고 쓰자 김집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서제가 고쳐 쓸 때까지 김집은 온화한 말로 타이렀다. 김장생은 두 아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며 빙그레 웃었다. (송시열(宋時烈), <어록(語錄)>, <<신독재전서>>, 제18권)

김장생은 아들 김집에게도 예의를 갖추었다. 심지어 병상에 누워있을 때라도 아들의 질문을 받으면 부축을 받아 앉은 상태에서 대답하였다. 부자간이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그래도 예의를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버지 김장생의 신념이었다.

누구나 알 듯 김장생은 조선 사회에 예학의 가치를 세운 우뚝한 선비였다. 후세의 이름난 학자 중에서 그의 지도를 받지 않은 이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하필 왜, 예학이었을까. 김장생은 당대의 정치, 사회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을 ‘예절’에서 찾았다. 사적 이익에 눈이 먼 협잡꾼이 날뛰는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이기론(理氣論)과 같은 형이상학을 버리고 실천학문인 예(禮)로 돌아가자는 뜻이었다. 후세는 김장생과 김집 부자의 학문적 기여도를 호평해 그들의 위패를 문묘(文廟)에 모셨다. 당대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여민(與民)’ 곧 백성과 함께 유교의 이상에 한 걸음 다가가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스승으로 삼은 것이었다. 도덕적 불감증이 팽배하고 가정 교육이 무너진 오늘날이다. ‘예’를 중시하며 세상을 바로 잡으려 애쓴 김장생 부자의 이야기가 흐뭇하지 않은가. 그들의 삶은 21세기에도 등불이 됨직하다.

‘신설상가’와 새로운 도전

생생현장리포트



한 수 미
당진시대 취재부장

당진시대 신문에서는 <신설상가> 코너를 매주 운영하고 있다. 새롭게 오픈하는 곳의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하는 코너다. 몇 년째 신설상가 코너를 맡아 취재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당진에서 나고 자라 이곳에서 일하는 청년,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당진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찾은 이주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중년 등. 모두 다른 이유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얼마 전 신평면 금천리에 작은 빵집(달뽕804)을 문 연 부부를 만났다. 부부는 35년 동안 빵을 만들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부산에서 터를 잡고 빵집을 운영한 부부가 연고 없는 당진을 찾게 됐다. 버터나 크림 등이 가득 들어간 자극적인 빵이 아닌 오랜 시간이 걸려 만들더라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다.

혹시라도 임대료가 비싸 건강한 빵을 만들지 못할 것을 우려해 해 시내가 아닌 작은 동네에 자리를 잡았다. 부부는 “하루에 단돈 만 원어치의 빵을 팔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제 잘 되든, 망하든 당진에서 살아야지 않

겠냐는 부부는 당진에서 난 재료로 빵을 만든다. 당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가 지역을 대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느꼈다.

또 하루는 독일베이커리를 다녀왔다. 독일베이커리는 독일빵집 심중섭 대표가 오랜 꿈이었던 카페다. 독일빵집은 지난 한 해 17만 명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파배기 맛집이다. 독일빵집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취재해 왔기에 심 대표가 얼마나 그 꿈을 이루고 싶었는지 알고 있었다.

다른 날은 면천에 있는 파스타 가게를 갔다. 덕부역의 이덕순 대표는 화가다. 하지만 평생 살아 온 도시는 그에게 피곤함을 줬다. 시골로 가자는 마음으로 찾다가 당진의 면천을 알게 된 후 이곳에 작은 파스타집을 문 열게 됐다. 이 대표가 꿈꾸는 곳은 성공한 파스타집이 아니다.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곳에서 새로운 문화가 피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문을 열고 문화인들이 모인다고 한다. 한 사람에 의해 마을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 싶었다.

내가 신설상가 취재를 좋아하는 이유다. 취재하지 못했더라면 듣기 어려운 사장님들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전하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독자들에게 전한다. 단순히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과 철학에서 많은 것들을 배운다. 새로운 희망을, 도전의 용기를 매주 취재하면서 얻고 있다. 미약하지만 기사를 통해 이들의 시작을 매주 응원한다.

이정록 시인의 서랍

우는 아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다. 아이의 겨드랑이에 인형이 있다. 오른 손등이 젖자 왼 손등으로 닦는다. 인형이 반대쪽 겨드랑이에 있다. 그렇게 다섯 번이나 오간다. 천천히 옮겨가는 동안, 인형의 손과 팔과 엉덩이가 아이의 가슴을 어루만진다. 울음이 멎는 동안, 인형은 울먹임을 조금씩 들이마신다. 겨드랑이에서 나온 인형이 울음 그친 아이를 바라본다. 인형의 눈동자로 옮겨 간 우는 아이의 반짝이는 눈물이다.

『지구의 맛』 한겨레아이드

감정의 모양은, 그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

<부라리다>란 말에는 확장되는 분노의 웅덩이에서 포탄이 솟구치고 불화살이 날아온다. <식식거리다>는 말에는 쇳물이 끓는 거품집이 보인다. 주물물 밑에 불뚱을 맞은 맨발이 있다. <슬픔, 배고픔, 아픔, 서글픔...>이란 말에는 현재의 가문 웅덩이에 먼 앞날의 말라붙은 소금호수가 잇대어 있다. 마음의 웅덩이가 텅 비어 있다. <그립다>란 말에는 끊임 없이 샘솟는 실로 한 땀 한 땀 그림을 수놓는 것 같다. 때로 바늘에 찔려 빨간 동백꽃이 피기도 한다. <오

싹하다>란 말에는 등짝 골짜기를 중심으로 내 몸이 접힐 것 같다. 몸에도 계절이 있다면, 그 등골로 겨울바람이 몰아치고 복수초꽃이 눈을 털어낼 것 같다.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다. 사람마다 다르다. 나에게서는 웃음인데, 다른 이에겐 눈물일 수도 있다. 경험의 차이로 저마다 감정의 잣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라 보고 놀란 사람이 슬픔경을 보고 기겁할 수도 있다. 자라보다 크고, 뜨겁고, 김이 솟구치는 헛것이 공포심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라 보고 놀랐던 이가 슬픔경을 비웃을 수도 있다.

시 속에 한 아이가 울음을 오므리려고 애쓰고 있다. 서서히 밝아오는 아침처럼 눈물이 어둠을 닦아내고 있다. 손등으로 슬픔을 조그맣게 다지고 뭉쳐서 인형의 눈알에 옮겨준다. 슬픔을 나눈 인형과 가까운 사이가 된다. 감정이 곧 몸이기 때문이다.

‘눈물’이란 말과 ‘뚝!’이란 명령어는 언제나 짝이 아니다. ‘뚝!’은 폭력이다. 아이의 울음을 틀어막는 용당포(김중삼의 시 「민간인」에 나온, 울음 우는 영아를 삼켜버린 곳)는 사라져야 한다. 울음이 왜 왔는지? 그 울음에 이름을 붙이도록, 우는 아이와 오래도록 말을 나뉘야 한다.



이정록 시인

생태문화수도 충남 만들기

정책에 민심을 더하다

코로나 블루에 지친 도민의 치유 힐링을 위한 비의료 서비스 요구가 높아지면서, 서해안시대 중심도시 충남의 생태문화자원을 연계한 복합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비의료 치유힐링을 고려한 다기능 생태문화수도 충남 만들기에 주목하고 있다.

충남이 지니는 생태문화적 가치는 이들을 능가하여 국내에서는 단연 으뜸이고, 국제적으로도 규모는 비록 작을지라도 생태문화적 다양성과 밀도 등 질적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겠다. 서천갯벌을 비롯한 서해안갯벌은 세계5대 갯벌로 평가되어 이미 유네스코세계유산과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가로림만, 천수만, 금강하구, 신두리사구, 두웅습지, 방우리습지, 천내습지와 같은 크고 작은 생태자원들이 분포한다.

역사문화자원으로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고도와 서원을 비롯하여 읍성, 삼남길, 천안삼거리와 같은 장소성, 천주교와 불교, 기독교의 순례길과 순교지, 성경 전래지 등의 종교적 유산과, 지정학적으로 서해(황해)문화권의 중심이었던 역사적 사

실들을 들 수 있다.

나아가 둘레길,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가정원, 지방정원, 국립수목원과 같이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면서도 일상생활을 통해 휴식과 힐링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생태관광과 연계하여 지역 상생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서 생태문화관광 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

생태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열거한 생태문화관광 자원과 함께 교통망과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충남도에는 경부선, KTX, SRT, 장항선, 경부고속국도, 서해안고속도로, GTX-A·C, 서해선, 제2경부고속국도 등 수도권 및 광역권으로 연계되는 교통망이 이미 완성되었거나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되어, 충남도의 북부권은 수도권 1시간 생활권을 이루며 남부권도 1시간30분 ~ 2시간 생활권 범위에 들어 사실상의 수도권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서축 및 영호남권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내포철도, 보령선, 호남고속선, 호남선 등 우리나라 전체가 2~3시간에 접근 가능한 반나절 생활권을 이룬다. 여기에 서산공항이 완

성되면 국내 모든 지역과 중국 동부권은 1시간권 이내이며 중국과 일본, 동남아도 2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하여 수도권은 물론 다른 광역권에 비해 유리한 접근성을 지닌다.

이러한 잘 짜여진 교통망과 충남도 내 분포하는 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관광인프라들을 연계하고 여기에 보편적 복지로서의 비의료 치유힐링 서비스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 최고의 생태문화중심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필자는 충남만의 색채를 지닌 생태자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화해문화원 등 생태문화 인프라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비의료 치유힐링 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는 생태문화수도 충남을 제안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충남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며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환경과 경제와 사회를 아우르는 가장 모범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이 될 것이다.



박 미 옥
나사렛대학교 교수
충청남도 기후환경보과
정책지원위원

김대건의 조선전도…대동여지도에 16년 앞서

솔피성지 전시관 특별전 개막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재조명

[당진]대한민국 최초의 사제이자 2021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당진의 김대건 신부를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진행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시에 따르면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당진 솔피성지 내 김대건 신부 기념관에서는 내포교회 사연구소 주최로 ‘김대건 조선을 그리다’ 전시가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5월 초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는 1845년 김대건 신부가 제작한 ‘조선전도’를 주제로, 성직자를 넘어 지리학, 조선학, 측량학 등 다양한 학문을 섭렵한 신지식인으로서의 김대건 신부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선전도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보다

16년을 앞서 제작됐으며 서울(Seoul), 우산국(Ousan) 등 한국 지명을 발음대로 로마자 표기해 서양에 알렸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한 조선전도 원본은 지난 2019년 천주교 대전교구와 당진시가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새롭게 발견한 바 있다.

내포교회사연구소 김성태 신부는 “솔피에서 태어난 소년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유학하며 신지식을 접했고 그의 삶과 신앙, 시선이 손수 그린 한 장의 지도에 담겨 있다”며 “전시회를 통해 김대건을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내포교회사연구소(041-362-5028)로 문의할 수 있다.

/당진시 제공



김대건 신부가 제작한 조선전도.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표기했다.

충청인의 詩香

세 월

푸른 달빛이
가로등 사이로
개천 따라 흐르고

텅 빈 거리

달빛 문헌
바람 다가와
조곤조곤 속살거리면

누군가는
우뚱이 멈추어서
남인양 반갑고

누군가는
이별의 달음질에
그리워서 애달파라

그러...

밤 별에
머리 젖혀
이맛머리 후욱 불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김 기 정 시인

·수필(2008. 수필시대등단, 시(2012. 미래시학등단)
·한국문인협회·충남문인협회·홍성문인협회 회원

장영실의 꿈과 사랑 ‘옥루’ 공연

오는 21일 아산시 평생학습관

[아산]아산시립합창단이 오는 21일 아산시 평생학습관(구관) 아산 아트홀에서 김순정 지휘자의 지휘로 창작 뮤지컬 장영실의 ‘옥루-조선의 시간을 만들다’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아산시립합창단 창단 이래 최초로 자체 제작해 초연하는 창작 뮤지컬로 아산시

립합창단 편곡자 윤창호가 작품 전체 음악을 작곡했다.

철저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천한 천민으로 태어난 장영실이 관노(官奴)의 신분에서 대호군으로 승진하기까지는 그의 뛰어난 발명 능력과 그런 그의 재능을 높이 샀던 대왕 세종의 편견 없는 시선이 있었다.

세상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편견을 걷어낸다

는 것은 현대사회에도 어려운 일이다. 합창단은 아산을 대표하는 천재 발명가 장영실과 어진 임금 을 대표하는 세종대왕,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뮤지컬로 만들어 아산을 대표하는 위인을 세상에 알리고, 한발 더 나아가 ‘조선시대 속에 숨어 있던 파격적인 지혜’를 세상에 나눌 기회를 마련했다.

시립합창단 관계자는 “시민들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쳤던 몸과 마음을 이 공연을 통해 위로받고 희망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시 제공

마이클리·김소현 무대, 논산에서 만난다

21일 보훈의 달 기념 공연 개최

[논산]논산시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뮤지컬 팜스오케스트라&마이클리, 김소현, 시립합창단 등을 초청,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유월음악회’를 개최한다.

오는 21일 저녁 7시 논산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개최되며, 약 90분 간 국내 최정상 배우·연주팀의 고품격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예매는 논산아트센터 홈페이지(www.nonsan.go.kr/arthall)에서 가능하며, 논산시민 및 사이버 논산시민은 5000원의 관람료만 내면 된다.

유월음악회에서 논산시민을 위한 특별한 공연을 선보일 ‘뮤지컬팜스오케스트라’ 팀은 국내 최초로 뮤지컬 음악과 팝음악을 전문으로 연주하기 위해 창단됐으며, 탄탄한 연주력을 바탕으로 뮤지컬OST공연, 국내 대형가수의 콘서트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화려한 색채의 음악으로 깊은 감동과 재미를 선사한다.

또한, 마이클리와 김소현 등은 명실상부 국내 최정상의 뮤지컬 배우로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고품격 공연을 선보여 코로나19로 지친 논산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잊지 못할 감동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이클리



김소현

시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유월음악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6월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공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논산시 제공

천안문화재단, 대관 공모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접수

지역 예술인에게 전시 공간 지원

[천안]천안문화재단이 2022년 한 뼉 갤러리 하반기 공간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차량등록사업소 3층 ‘삼거리 갤러리’와 서북구청 별관 ‘서북 갤러리’를 운영하는 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 창작 의욕 고취 및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 대관 가능 기간은 7월에서 12월까지이며 최소 1주에서 최대 2주까지 대관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소지를 둔 작가 또는 예술단체, 천안시 소재 대학 졸업자 혹은 대학원 재학·수료자, 천안시 출향작가, 지역 중심 작가 또는 단체이다.

하반기 대관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로, 천안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심의를 통해 6월 말 개별 통보되며, 자세한 내용은 천안문화재단 누리집(www.cfac.or.kr)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2012년도에 설립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천안문화재단은 천안흥타령춤축제를 비롯한 천안예술의전당과 천안시립미술관,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며 공연사업, 기획전시,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및 예술인지원 등 시민 중심의 미래 지향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백마강변의 시인 신동엽 생각

윤성희의 만감萬感

시인 신동엽(1930~1969)은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역사의 복판을 짚지만 굼고 무겁게 살다간 사람이었다.

1959년 등단한 이래 그가 시인으로 산 10년은 흔들림 없는 전사(戰士)의 삶이었다. 세상의 ‘껌데기’와 싸운 투사였고, 시대의 ‘쇠불이’와 맞선 전사였다. 시인의 무기는 연필 한 자루와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그 연필은 날카로웠고 그 종이는 질겼다.

시인은 백지 위에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大地)를 구축했고, 도도하게 굽어치는 금강의 역사를 기록했다. ‘아니오’, ‘산에 언덕에’, ‘껌데기는 가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를 써서 세계의 어둠과 거짓에 대항했다. 그의 시들은 60년대를 치열하게 건너도록 안내하는 꺼지지 않는 전광판이었다.

수레의 두 바퀴처럼, 자신과 함께 60년대의 어둠에 독화살을 날리던 김수영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자 그는 이렇게 추모했다.



신동엽 시비

“한반도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는, 어두운 시대의 위대한 증인을 잃었다. 그의 죽음은 민족의 손실, …… 가슴 아픈 손실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그로부터 1년도 못 돼 간암을 선고받고 불과 한 달 만에 숨을 거둔 신동엽에게도 그대로 돌려져야 옳았다. 우리 문학

사는 그때, 시대의 어둠을 밝히던 두 별을 고스란히 떠나보냈던 것이다.

추모 글에서 신동엽이 했던 말, “그러나 시인 김수영은 죽지 않았다.”는 선언 역시 똑같이 유효하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시인 신동엽은 죽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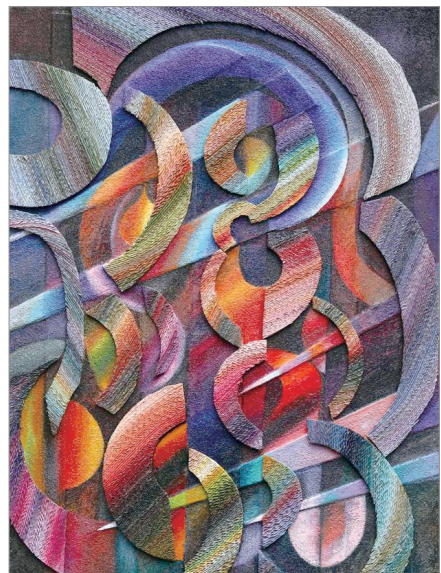
지금도 살고 있는 신동엽의 시비를 만나러 백마강변에 다다른다. 신동엽이 세상을 떠난 뒤 ‘신동엽 시비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구상)를 구성하고, 문인, 동료, 제자 등 100여 명이 비용을 모아, 1970년 4월에 건립한 시비다. 반세기가 넘어 지난 지금의 눈으로 보는 탓인지 시비 주변이 웅색하고 조악하다.

그나마 주변 소나무 뒤로 맑고 푸른 하늘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감지덕지다. 시인이 얼마나 염원하던 하늘이던가. 시인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에서 마음속 구름을 닦고 머리 덮은 쇠 항아리를 찢어야 티없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마음속 구름을 충분히 닦고 있는가.

/윤성희(문학평론가)

“전통 천연염색이요? 가족에 하면 더 예뻐요”

최현숙 가족천연염색 작가
선미미술관서 세 번째 개인전
범죄 피해자 위한 사회공헌도



가족천연염색 작품

[홍성]전통가족천연염색 명장 예빛 최현숙 작가가 지난달 수덕사 선미미술관과 강릉시립미술관에서 세 번째 개인전 ‘예빛, 그 꿈의 날개여’를 열었다. 최 작가는 전시회를 통해 축하 화환 대신 전달받은 쌀을 강릉지역 산불피해자들과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기탁해 따뜻한 희망과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어릴 적, 신사임당을 인생의 롤모델로 삼았다는 그녀는 활발한 예술 활동과 봉사활동으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됐다. 홍주신문은 홍북읍의 한 카페에서 최현숙 작가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세 번째 개인전을 개최한 소감은. “고향인 강릉의 시립미술관과 충남지역을 대표하는 미술관인 수덕사 선미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게 돼 감회가 남달랐다. 전시 일정이 초파일과 겹치면서 전국에서 온 수많은 관람객과 만날 수 있었고, 강릉 지역의 예술가들도

만나는 계기가 됐다.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하는 것 외에도 ‘만남’이라는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걸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배웠다.”

가족천연염색의 매력은 무엇인가. “처음엔 일반 천연염색으로 입문해 전국 각지의 유명한 선생님들은 다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공주에 계신 김영숙 선생님을 통해서 가족염색을 깊이 공부하게 됐다. 소가족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앞으로 우리지역 특산물인 한우와 연계해 작품뿐만 아니라 관광 상품을 만들 생각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염색의 매력은 깊이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빛’이라는 호에 담긴 의미는. “서예 할때 지은 호다. 꽃꽂이할 때 ‘수당’이라는 호도 있었는데 이번에 ‘예빛’으로 호를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예빛’이라는 호가 담고 있는 의

미는 ‘예술의 빛을 발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경력은. “2006년 군립합창단 활동을 마치고, 다음해인 2007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분과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이후 2020년까지 활동을 했다. 현재는 7년간 몸담았던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있다.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많다. 이들을 위해서 함께 소통하고 봉사하며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곳으로 성장한 게 가장 보람찬 부분이다.”

향후 활동 계획은. “열정이 아직 식지 않았다. 우선 명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작품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고,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

최현숙 작가 ▶

해 작품 연구에 더욱 힘을 쏟아볼 생각이다.”

홍주신문/김경미 기자



직장인 마술 콤비…“무대만 있다면 어디든”

현대제철 ‘매직스틸가족봉사단’
회원 50여명 다양한 마술 선포

[당진]현란한 음악과 함께 무대 위로 두 명의 마술사와 미녀 도우미가 등장한다. 관객들의 기대 속에 시작된 마술쇼. 마술사는 가져온 검은색 카드와 빨간색 카드를 먼저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재빠르게 섞으며 관객들에게 빨간색 카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집중환 관객들은 빨간색 카드가 누구 손에 있을지 예측해보지만, 분명 있었던 빨간색 카드는 사라지고 검은색 카드만 남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알 수 없지만, 흥겨운 분위기 속 빨간색 카드의 행방은 중요하지 않다. 마술사의 춤사위에 객석 여기저기에서 ‘우와 우와’ 하는 감탄사와 동시에 웃음이 터져 나온다. 이처럼 ‘매직스틸가족봉사단’의 윤영준 단장과 최승영 부단장 공연에는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다.

취미로 마술을 공부했던 윤영준 단장은 회사에 입사 후, 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직접 ‘매직스틸동호회’를 만들었다.



현대제철 ‘매직스틸가족봉사단’ 최승영 부단장(좌)과 윤영준 단장(우).

이 동호회에서 최승영 부단장을 만났고, 마술 기술을 배우기만 하기엔 뭔가 아쉬움이 있었던 시기, 마술 공연 봉사활동 제의를 받게 됐다. 그리하여 둘은 환상의 마술 콤비가 되어 ‘매직스틸봉사단’을 설립했다.

이후 윤영준 단장은 마술 기술과 도전적인 마인드로 봉사단을 이끌었고, 최승영 부단장은 적극적인 표현력과 분위기메이커를 담당하며, 마술공연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재능 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회사생활을 하는 두 사람은 연습 시간을 맞추기도 어려웠고, 봉사활동 시간이 늘어나자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며,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으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위기를 기회 삼아 봉사단 이름을 ‘매직스틸가족봉사단’으로 변경하고 가족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공연을 했던 ‘매직스틸가족봉사단’은 코로나 이후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현재는 동영상으로 관객을 만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공연 휴식기가 길어져 한동안 연습을 잘 못 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실력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대면 공연을 동영상으로 대체하여 관객을 만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재미있는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올해에는 공연도 많이 하고 많이 웃겨드릴 거예요!”

당진신문/정윤성 기자

“고마움 늘 잊지 않았습니다”

주연순 씨, 고향에 50만원 쾌척

[서천]관교면 만덕리에 거주하는 주연순(70) 씨가 자신의 고향마을 오석2리를 찾아 마을주민들을 위해 50만 원을 쾌척했다.

주연순 씨의 고향은 오석2리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힘들게 살아갈 때에 마을 주민들의 보살핌과 도움이

큰 힘이 됐던 것.

그 시절 마을 주민들의 보살핌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았던 주연순 씨는 어버이날을 맞아 마을회관에 50만 원을 쾌척하고 고마움을 표했다.

마을주민들은 이를 흔쾌히 수락하고 이날 마을어르신 20여명을 모시고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천신문

신명나는 농악 가락에 ‘모 한뼘’

청양에서 모심기 재현행사

[청양]청양문화원 청무풍물패 소속 두레농악보존회(회장 최창만)가 지난 달 21일 청남면 인양리 한 농가에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모심기 재현 행사를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풍년을 기원하며 못줄을 띠고 손 모내기를 진행했다.

또 흥겨운 두레농악 가락과 함께 새참먹기, 한상봉 지도강사의 선소리로 모심기 소리를 전하며 흥을 돋웠다. 팽과리 소리에 맞춰 ‘어렐러 상사디여, 소식소사 잘 심어 놔주소~’ 가락의 농요를 부르며 조상들의 소리를 되살렸다.



청양두레농악보존회

두레농악보존회는 매년 손 모내기를 시작으로 수확까지 벼농사 전 과정을 재현하고 있다. 물을 대주는 용두레질, 논매기(아시·두벌·만물), 벼바심(추수), 줄가리 작업, 타작소리, 나비질 소리, 말질 소리 등이다.

올해도 낮으로 벼 베는 작업과 자리재질소리(타작)도 재현할 계획이다. 청양신문/이동원 기자



사서들의 서재



〈황조교, 초록비책공방 2022〉

천재 가이드와 떠나는 뮤지컬 여행

‘뮤지컬 익스프레스 슈퍼스타’는 뮤지컬 분야 인플루언서인 황조교가 SNS에서 소개했던 뮤지컬 이야기를 엮어 만든 뮤지컬 입문서이다. 일반 대중에게 뮤지컬이라는 장르의 매력을 보여주고, 더욱 재미있게 뮤지컬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팁을 이 책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저자는 우연히 뮤지컬 렌트에 객원 배우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뮤지컬을 사랑하게 되었고, 군 제대 후 뮤

지컬 배우를 꿈꾸게 되었다. ‘황조교’라는 부캐는 학부 조교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과제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소개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면서 만든 캐릭터로,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다양한 SNS를 통해 해외와 국내 뮤지컬 소식, 뮤지컬 배우 이야기 등 다양한 뮤지컬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본 도서는 ▲오버추어 ▲1막 ▲인

터미션 ▲2막 ▲커튼콜 다섯 부분으로 마치 공연장에 앉아 뮤지컬 한 편을 직접 보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다. 저자가 뮤지컬계로 입문하게 된 계기부터 최근 뮤지컬 트렌드 등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기본에 따라 추천하는 뮤지컬 음악과 극장 밖에서 뮤지컬 즐기는 법, 실패 없이 뮤지컬 선택하는 법 등 뮤지컬 관람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알려준다.

황조교가 안내하는 뮤지컬의 세계에 빠져들다 보면, 당장 컴퓨터 앞에 앉아 치열한 티켓팅을 거쳐 인생 뮤지컬을 한 편 만나고 싶어진다. ‘누군가에게는 뮤지컬이 현실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진통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미처 몰랐던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는 가이드(p.31)’가 될 수 있는 뮤지컬의 매력을 깨닫는 계기와 더불어, 뮤지컬을 200% 즐길 수 있는 꿀팁을 활용해 팍팍한 삶 속에서 뮤지컬이 작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염은진 충남도립대학교

“220만 도민 위해 달려온 4년”...마지막 정례회 개회

제337회...작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8일부터 오는 22일 까지 15일간 제337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충남도의회 의회 마지막 회기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제337회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총 44건의 의안을 심의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조례 제·개정 처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5분 발언 등이 예정돼 있다.

김명선 의장은 “충남은 지금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추진 중인 사업들이 민선 8기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며 충남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2대 의회 또한 도민에게 신뢰받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며 “지난 4년 동안 11대 도의회와 함께 한 220만 도민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변화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공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의 출자·출연기관들이 도민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선영 의원은 차기 12대 충남도의회에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제11대 충남도의회 마지막 본회의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제337회 정례회 조례 신설·개정

수산종자산업 고부가가치 키운다



김명숙 의원

충남도의회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친어(親魚·증식용으로 적합한 어류)나 모패(母貝·증식용으로 적합한 패류) 등 수산종자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인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용어의 뜻도 명확히 정리했다.

특히 충남도가 연구한 분야는 도민에게 무상 대여·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과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년간 무상 대여 및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문화 유아에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오인철 의원

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신설해 기존 외국 국적 유아들이 지원받지 못했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립유치원은 1인당 매월 15만 원, 사립유치원은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올해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의 설립에 따라 ‘다문화교육 지원센터’ 용어를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로 변경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이라는 용어를 현행 교육부 행정용어에 맞게 ‘다문화학생’으로 변경했다.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높인다



오인환 의원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성별영향평가 추진의 법적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개념 및 대상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 제안제도와 모니터링 등 도민 참여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오 의원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여 남녀가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업·임업 공유재산 대부분 감면



정광섭 의원

충남도의회는 지난 9일 제337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대부분 감면할 경우 어업 및 임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부요율을 2.5%에서 1%로 감면하도록 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공유재산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 또는 6000㎡ 이상 토지이다.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또는 5000㎡ 이상 토지로 명시했다.

사회적가치 증대 위한 공공조달 강화



정병기 의원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제한경쟁 관련 부분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했다.

정 의원은 “충남도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이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정보 인지·대처 실효성 강화한다



지정근 의원

도의회는 지정근 의원(천안9)이 대표 발의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나 관공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주체들이 재난정보를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도지사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지정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재난 상황의 신속한 인지와 정확한 대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여성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힘써야



한영신 의원

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천안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직업교육 운영, 취·창업 관련 상담·알선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의 센터 이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도 조례안에 담았다.

한 의원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활발한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 환경학습권 보장해야



황영란 의원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 체계 전반을 정비했다.

조례명을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도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민간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환경교육을 촉진하는 등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37회 정례회 5분 발언

“도 출연기관, 도민과 적극 소통해야”



이공휘 의원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은 지난 8일 열린 제3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의 출자·출연기관들이 도민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도의 출연기관은 2022년 5월 기준 20개로, 24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 본예산 기준 140개 세부사업에 936억 8000만 원이 출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도내 기업인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추진한 결과 기업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지역에서 지역업체가 배제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원적 민주주의 자리 잡아야”



이선영 의원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3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12대 의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길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소수정당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불합리함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방 이후 최초로 진보정당 의원이 충남도의회에 입성하면서 많은 변화를 이끌었지만 의회 운영이 양대 정당 위주로 고착화돼 거대한 벽과 마주한 느낌이었다”며 “구조적 문제를 혁파해 의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도민과 함께한 70년, 더 큰 도약 꿈꾼다”



충남도의회 개원 7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개원 70주년 기념식 개최 의정활동 경과보고 및 사진전 등 다채

충남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걸어온 70주년을 돌아보고 더 큰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8일 오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충남도의회 개원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공주시충남교향악단의 축하공연과 의정활동 경과보고, 김명선 의장의 기념사와 양승조 충남도지사 및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축사, 70주년 퍼포먼스, 사진전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의회는 특히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 신재원 의정회 회장, 김정숙 의정회 사무총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명선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의 험난한 역사 속에서 곳곳하게 역할을 해냈고, 대의기구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70년 역사를 계승해 100년, 나아가 200년을 넘어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1952년 5월 20일 초대의회가 출범, 1961년 5월 16일 의회가 해산된 뒤 30년간 중단되었다가 1991년 제4대 도의원 선거가 실시되며 지방의회 부활을 알렸다.

제33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주요활동

효율적인 의회 운영 제도 개선 나서

의회운영위원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충남도의회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기후)는 지난 8일 제337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시 의원 정수를 19명 이내로, 특별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안은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섭단체 등의 대표연설을 명문화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됐다.

운영위는 이외에도 청원자의 성별 특성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안건은 22일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안정적·효율적인 재정 운용 강조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는 제337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공무원 복무조례 등 조례안 4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의결하고, 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감사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행문위 위원들은 세입예산 대비 결산 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모든 세입예산을 철저히 추계한 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라

고 강조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은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이 발생했다”며 “미수납 감소를 위해 납부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 처분 활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에게 계약서상에 연체 및 미납액이 과다한 경우 계약해지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계약사항을 명시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해 미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옥수 부위원장장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조사업 예산 감독 철저 당부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현)는 9일 제337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공보관, 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심의했다.

안장현 위원장(아산4)은 “재량지출 비중이 타 시도 평균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량지출 비중을 높이는 것이 도민을 위한 예산인만큼 도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특화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은 “해당연도에 지출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량 및 사업시기 등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도 재정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납결손액이나 예산 불용액이 여전히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며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활동, 도정 사업의 철저한 운영으로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계속·이월사업 마무리에 최선 다해야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지난 9일 제337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을 심사하며, 사업 결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은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 “편성예산 6억 9000만원 중 6억 5040만원을 계속해 명시이월했는데 사업이 부진한 사유를 파악해 조속히 추진 완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종자연구센터건립) 사업이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사기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은 ‘귀어학교 교육운영’ 사업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남을 점을 지적하며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은 “수산물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10%대로 저조하다”며 “사업추진 계획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하천사업 신속히 추진할 것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계양)는 9일 제337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지방하천 및 교량 공사가 지연되어 도민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소요비용도 늘어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결산서 상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와 사용료 등 미수금이 일부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은 오전에 열린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 질의 답변을 통해 “제안설명서 제출 결산 집행잔액 중 일부 항목의 잔액과 결산서 금액이 상이한 이유를 질의했다. 전 위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시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지방하천의 호우피해 복구 등 주민의 안전이 시급하여 편성된 예산들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당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도내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으로 지정 가능한 하천은 한시라도 빨리 지정에 힘써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정부 보조사업 서둘러 진행해야

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오인환)는 9일 제337회 정례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 관련 조례안 2건 및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2021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781억 2568만원으로, 이중 4607억 8503만원을 징수 결정해 총액 대비 99.9%인 4606억 9340만원을 수납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은 “중앙부처와 우리와

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관련해서도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 건강영향 조사와 관련해 5년 후 어린이들이 성장한 후에도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탄소중립연수원의 경우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은 제고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공사·물품 구매 지역업체 적극 활용”

공공조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철·이하 공공조달 특위)’는 지난 8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결과보고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2021년 4월 13일 구성된 공공조달특위는 충남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공식회의를 통해 공공부문에 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선도해야

할 정책개발 및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해 충남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등이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남지역 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천안 홍성현
(국·3선·62)

정정합니다

충남도정신문 제941호 4면에 보도된 ‘제12대 도의회 당선인’ 중 홍성현(천안1·국민의힘·62) 당선인은 초선이 아니라 3선임을 정정합니다.

2022 BORYEONG
SEA MUD EXHIBITION
보령해양머드박람회
2022.7.16~8.15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가치

2022 보령해양머드 박람회

BORYEONG SEA MUD EXHIBITION

주최 충청남도 보령시 주관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후원 해양수산부

개회기간

2022. 7. 16.(토) ~ 8. 15.(월) (31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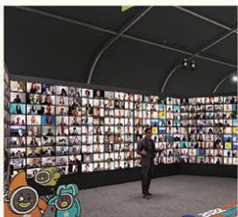
개회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82 (주행사장) 대천해수욕장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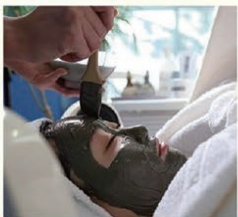
프로그램



해양머드 주제관



해양머드&신산업관



해양머드 체험관



해양레저&관광관



해양머드 웰니스관



특산품 홍보관



해양머드 영상관



학술행사

이용요금

구분		입장요금(원)		적용범위
		현장요금	예매요금	
보통권	일반	12,000	9,000	· 일반 : 만 19세~64세 · 청소년 : 만 13세~18세 · 어린이 : 만 4세~12세
	청소년	9,000	7,000	
	어린이	6,000	5,000	
단체 할인권	일반	9,000	-	· 단체할인 - 내국인 : 예매 및 당일판매 20명 이상 - 외국인 : 예매 및 당일판매 10명 이상 · 특별할인(인원에 상관없이 할인) - 기타 : 만 65세~74세 - 보령시민(주민등록기준)
	청소년	7,000	-	
	어린이	5,000	-	

무료입장

- 국가(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 만 75세 이상인 자
- 만 4세 미만 아동, 공무 수행자, 국민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 단체 인솔자(20명 기준 1인), 단체관람 유치여행사 가이드 1인
- 학교단체 인솔 교사

사전예매 이벤트

약 20% 할인

오픈일~22년 7월 15일 까지

일반 9,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0원



입장권 구매 QR

행사장 운영안내 041)930-2842 입장권 예매 041)930-2831